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양선화	학번	4
이메일	seoninseon@korea.kr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University of Kentucky / Non-degree	(국가) U.S.A
기간	2016.12.29~2017.12.30	[귀국일:2017년 12월31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처장 귀하

2018년 1 월 25 일

신청인 : _____ 양 선 화 (인)

1. University of Kentucky 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1) 지리적 위치 및 날씨

- 켄터키 주는 미국의 중동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부이지만 동부에 가까워서 표준시는 동부시간을 따르고 있습니다.
- 날씨는 한국의 날씨와 매우 유사해서 4계절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지만 한국과는 달리 습도가 낮습니다. 초기 정착할 때에는 건조함으로 인해 약간의 고생을 하였습니다. 집안에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 겨울의 날씨는 한국과 비슷하지만 전 세계적인 기후변동으로 인해 어느 해는 눈이 많이 오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춥기도 하지만 또 어느 해에는 가을과 비슷한 온도의 겨울이 있던 때도 있습니다.
- 여름은 기온이 높아서 햇빛을 직접적으로 맞으면 매우 따갑지만 그늘에 들어가기만 해도 더운 날씨는 아닙니다. 봄과 가을이 길고 매우 아름답습니다.

2) 도시환경

- University of Kentucky는 켄터키 주의 Lexington 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렉싱턴 도시는 켄터키 주에서 3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루이빌이 제일 큰 도시이고 그 다음이 신시내티 그리고 렉싱턴입니다. 렉싱턴은 대학교가 중심이 되어 성장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학교가 시내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미국내에서 최근에 지속적으로 인구와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흔치 않은 도시입니다.
- 공항에서 내릴 때 보이는 것처럼 도시 전체는 Blue grass 라는 종의 푸른 잔디가 펼쳐져 있고, 1년 내내 푸르름과 깨끗한 공기를 품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토피 또는 공기질환으로 고생을 하신 분도 이곳에 오면 낫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깨끗한 자연환경 때문에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거나 배탈이 나는 경우가 한국에 비해서 매우 낮습니다. 참고로 렉싱턴 거주시 만 3세의 아이였던 저의 아들도 초기 정착시에 걸린 감기 1회를 제외하고는 매우 건강하게 지내다 왔습니다.
- Blue Grass 라는 종이 잘 자랄 수 있는 여건은 지반이 Limestone 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먹어도 미네랄이 풍부하여 거주하고 있는 현지인들은 정제하지 않고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산맥 안에 있는 지형적 위치여서 1년 내내 태풍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가 없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매우 시골은 아니고, 대학 중심의 중형도시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대형상점들과 레스토랑이 가까이 있고,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 렉싱턴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교민은 500명 이하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로 백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말산업에 종사하는 멕시코계인들과 소수인종이 살고 있습니다. 치안은 매우 우수한 편이며, 현지인들은 외국인인 저희들에게 아주 우호적입니다. 친절한 현지인들 덕분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2. 아이들 교육환경

- 저의 경우 동반하였던 아이가 만 3세로, Pre-school 에 입학이 가능하였던 나이였기 때문에 저의 아이를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적으로 렉싱턴의 교육환경은 매우 우수한 편입니다. 렉싱턴 내의 학교는 미국 전체내에서 보아도 상위그룹에 속할 정도로 교육의 수준이 높습니다.
- Pre-school 의 경우, 사립을 보내야 하는데, 비용은 대략 월당 600~1500 달러 정도로 매우 다양하고 높은 편입니다. 물론 스쿨버스를 운영하는 곳은 거의 없다고 봐야하고 부모가 직접 자동차로 Pick up 을 책임져야 합니다.
- Pre-school 에 대한 정보는 도서관에 가서 리플렛을 얻을 수도 있고, 구글 맵에서 Pre-school 을 검색하여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인과 현지인들의 소개로 알아보셔도 됩니다. 일단 주변의 Pre-school을 한곳을 방문하시면(전화나 직접 방문으로 약속시간을 잡으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매우 친절하게도 주변의 관련 기관들도 함께 소개해 주십니다.
- Pre-school에 대한 정보가 모이면 등록비, 프로그램 내용, 학교의 이념, 시설 등을 살펴보고 Director 선생님과 함께 상담을 받으신 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 미국은 9월에 학기가 시작하는 관계로 정원이 찬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가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All-day 에 보낼 수도 있고, Half-day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중에도 월수금, 또는 화목 이렇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자리가 없다 하더라도 Waiting list에 올려놓으면 연락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생활 관련 사항

- 렉싱턴은 자연환경이 매우 좋지만, 위치상 유명한 곳으로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약 6시간 정도의 시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가야합니다. 물론 주변에 가까운 곳도 있어 주말에는 당일치기로 여행하시기도 좋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붐비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 물가는 다른 미국 지역에 비해서 매우 싼 편입니다. 주거지는 어느 곳을 선택하시고 어떤 주거형태를 선택하시는지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2 Bed, 1.5 bath 의 경우 800~1200 달러 내외입니다.
- 또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Tax 가 붙지 않고, 공산품의 경우 6% 의 Tax 가 붙습니다. 다른 지역이 일반적으로 10% 정도의 택스 범위가 나뉘는 것으로 볼 때 매우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 Macys, Target, Costco 등과 같은 대형마켓도 산재해 있고, 신시가지도 조성되어 있어 미국 내에서 볼 수 있는 Hot 한 마켓도 많이 있습니다.

4.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1) ESL 수업

- 선생님들의 학생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고, 생활 전반적인 영어를 익히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토론과 게임 그리고 각종 미디어 활용을 통해서 유익한 영어를 익힐 수 있고, 말하기 듣기, 쓰기의 모든 영역을 다루어 줍니다. 자유로운 질문과 대답시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영어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학생수는 매년 달라지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 클래스 당 6명 내외로 구성되어 밀도있는 수업이 가능합니다.

2) 행정학관련 수업

- 미국행정과 한국행정의 차이점 및 학생들의 research 주제에 맞는 강의를 통해 전문적이고 일반적인 지식을 동시에 습득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자료와 자유로운 토론방식, 그리고 이론과 실제행정가의 경험이 맞물린 강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국의 행정을 배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 교수님께서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 많으시고, 친절하고 눈높이에 맞는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즐거운 수업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미국 내 다른 도시를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기존에 계시던 분들의 여행담을 통해서 일반적인 루트를 짜서 준비할 수 있으며, 함께 여행할 수도 있습니다.
- 미국 중부에 있기 때문에 동부와 남부뿐만 아니라 서부까지 여행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 도시내 YMCA 등 기관을 이용하여 운동을 할 수도 있고, 거주지와 인접한 공원 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산책을 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6.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 렉싱턴에서 지냈던 지난 1년은 제게 잊지 못할 기억입니다.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갔던 낯선 땅 렉싱턴은 한국과 기후가 매우 유사하고 안전한 곳으로서 어린 아이를 동반하고 간 입장에서는 최적의 장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 또한 값싼 물가와 매우 친절한 지역 주민들이 있어서 적응하는데 무리가 없었습니다. UK 에서도 항상 학생들의 생활적인 부분과 학업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없는지 살펴봐주셨으며,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지역 한국인들과 저희들이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 한국내에서는 유명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가기 전에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었으나, 도시이면서도 번잡하지 않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는 전형적인 미국 도시였습니다. 안정적이고 영어를 배우는 환경에서 지내고 싶으신 분이라면 렉싱턴이 최고의 도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 현재는 렉싱턴 정착지원에 대해서 학교측에서 공식적인 담당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기에 비자 문제, 아이들 학교 문제, 거주지 문제 등 사전, 사후 절차를 준비하는 동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KDI School, 263 Namsejongro, Sejongsi, KOREA

TEL: 82-44-550-1253 FAX: 82-44-550-1232

HOME PAGE: <http://www.kdischool.ac.kr>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서봉자	학번	
이메일	bjseo98@gg.go.kr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켄터키대 Martin School / IPPMI	(국가) 미국
기간	2017.01 ~ 2017.12	[귀국일: 2017년12월24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교학처장 귀하

2017년 1월 23일

신청인 : 서봉자 (인)

1. 켄터키대학교 소재 렉싱턴(Lexington)시 일반 현황

렉싱턴은 켄터키 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자, 미국에서 60 번째로 큰 도시이다. City 와 County 가 통합되어 공식명칭은 Lexington-Fayette Urban County 이다. 미국은 통상 County 안에 여러 City 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Lexington 과 Fayette 는 완전히 같은 관할구역이다. 미국 지도로 보면, 동부로 분류하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중(동)부 내륙 정도로 인식된다. 남북전쟁 당시, 남부와 북부의 중간적 입지와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켄터키 주는 전통적으로 보수적 정치성향을 띄고 있으나, 120 개 county 중 렉싱턴과 루이빌(Louisville)이 있는 Fayette, Jefferson County 들은 진보성향을 보인다.

렉싱턴은 대졸 이상 비율(39.5%)이 미국 도시 중 10 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곳에는 Kentucky Horse Park, Keeneland race courses(경마장), Rupp Arena(세계 8 위의 실내 경기장, 23,500 석 규모), Transylvania University, the University of Kentucky, and Bluegrass Community and Technical College 등이 있다.

렉싱턴의 최대 고용기관은 켄터키대학교(14,000 명, 2012 년)이며, 이는 켄터키주의 9 번째로 큰 고용주체이며, 그 중 의과대학은 주에서 21 번째로 큰 기관이다. 그 다음으로 Lexington-Fayette Urban County 정부, 공립학교 및 기타 병원시설 등에 15,000 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렉싱턴(Fayette) 일반현황, 출처: Wikipedia, DATAUSA>

- 인구: 318,449(2016), 506,751(Metro Area)
- 면적/위치: 739.4 km²/북위 38.01°
- 기후: 1 월평균 -4~5 °C, 7 월평균 19~30°C, 봄가을 10~20°C
- 가구당 소득 중간 값: \$51,948(2015, 전년비 8.3% 증가), ※미국평균 \$56,516
- 인종: White 76%, Black or African American 14.5%, Hispanic 6%, Asian 3.2%
- 실업률/취업자수: 3.7%/162,000 명 (2015)
- 대기업체: Xerox, Lexmark International, Lockheed-Martin, IBM

렉싱턴은 2011 년 *Forbes* 지에 의해 Business 와 Carrer 부문 4 위에 선정되었으며, *Kiplinger* 에 의해 2008 년과 2011 년 각각 젊은 전문직 5 위도시 및 가치도시(Value cities) 6 위로 선정되었다.

미국의 6 개의 대학도시(University City) 중 하나로서, 발전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젊은 도시이다. 대학도시란 인구가 25 만~100 만이내이어야 하며, 도시 내 대학이 연구기관으로써의 중추기능을 해야 하고, 대학생 숫자가 일정부분이상 차지해야 하며, 생활비가 저렴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지식기반의 젊은 세대 위주의 도시로, 새로이 분류된 도시의 형태이다. 이 도시들은 이러한 특징 간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2. IPPMI 프로그램 경험 평가 및 후배를 위한 제안

IPPMI 프로그램은 UK(University of Kentucky)내 행정대학원인 Martin School 내에 소속된 프로그램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ESL(주 4~5 회/일 3 시간): 자격을 갖춘 원어민 전문강사가 주관, 영어실력 향상을 위한다면 예·복습을 철저히 하기를 권고 드림. 미국 현지이므로 원한다면 소기 목적달성이 가능
- 행정학 수업(학생 별 연구주제에 부합되는 내용위주): 미국 행정조직, 예산 및 각 분야에 따라, 초빙교수 혹은 Martin School 교수가 주관. 대부분 수업 전에 관련 자료 등이 배포가 되므로 관심분야라면 그 자료를 적극 활용한다면 얻을 수 있는 지식이 더욱 배가 될 것임.
- 현장학습: 주정부 및 지방정부, 기타 타 지역 지방정부 방문 등(방문 시에는 시간, 공간적 제약이 있으므로 미리 질문사항, 관심이슈 등을 준비해가면 현장에서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임 또한 그들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근무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궁금해 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물어서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인턴십: 하반기 두 달간(약 8 주) 관련기관에 배정되어 인턴십(Job Shadowing) 실시. 다양한 기관에 배정이 되는데, 관련 기관 발굴 및 섭외 등에 적극성을 보이는 게 중요. 실제 인턴십 기간 중 담당자와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상호이해 증진으로, 보다 효율적인 인턴십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음.

<생활정착 지원>

IPPMI 에서는 한인 유학생들의 생활 정착 지원을 위해 한인교포 전담 staff 를 두고 있음. 미국 귀국 시, 공항 픽업부터 아파트, 학교, 각종 공과금 등록 등의 초기정착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미국 출국 시 공항 라이딩까지 맞춤지원을 하고 있다.

3. 렉싱턴시 생활 전반

<쇼핑>

렉싱턴은 인구를 가지고 보면, 한국과 비교할 때 소도시라 할 수 있으나, 실상 생활 편의시설 면에서는 한국의 대도시와 비교해도 전혀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편의시설이 잘 되어있는 편이다. 우선 시내 중심에 Macy's 백화점을 비롯, 대규모 쇼핑몰 단지(Fayette Mall, Richmond Rd Mall, Hamburg area Mall, etc.) 가 조성되어 있다. 또한 2017 년 하반기에 또 하나의 쇼핑몰이 개장하였다(The Summit Mall)

대표적인 창고형 매장인 Costco 와 Sam's Club 이 있고, Walmart 가 6 개소 이상, 전자제품 전문매장인 Best Buy 2 개소, 주방/생활용품 전문매장으로 Bed bath & beyond 2 개소, 브랜드 화장품 전문매장인 Sephora, 그리고 의류전문 상설할인 매장 Target 과 T.J. maxx 가 3 개소가 있다.

켄터키 주는 농산물에 세금이 없는 주이다. 식료품 매장으로 Kroger 가 10 개소 이상 운영중이며, 유기농 식료품 전문점인 Whole Food Market 이 최신식 시설로 새로 개장했다.

또한 중고생활용품 매장으로 Good Will 매장이 약 10 여개소 운영중인데, 의류, 신발은 물론, 소형가전, 어린이용품, 가구, 주방식기류 등의 중고물품이 진열되어 저렴한 가격으로(3~5 불 이내) 판매되고 있다. 주변에 중고전시판매장을 보기가 힘든 우리나라와 달리 이곳은 모든 동네마다 접근할 수 있는 곳에 Good Will 매장이 운영되고 있어, 수시로 중고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한인식당>

렉싱턴에 있는 여러 외국음식점으로는 단연코, 일식당이 최고로 많다. 렉싱턴 뿐 아니라 미국 어디를 가나(시골 한적한 곳을 가도) 일식당은 찾기가 어렵지 않다. 렉싱턴 시내에 한인 식당은 한식 바베큐 및 간이 한식부페를 취급하는 Arirang Garden 이 있고, 중식을 겸하고 있는 Koreana restaurant(간풍기 맛 좋음)이 있다. 또한 학교 Martin School 에서 가까운 곳에 한우리(Han Woo Ri) 식당이 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식료품점인 동양마켓(Dong Yang Market)내에 식당이 있다(개인적으로 딱 한 번 갔었음)

한국 식료품점은 주로 두 군데를 이용한다. 동양마켓과 서울마켓이다. 규모 면에서는 동양마켓이 중국식재료 등을 함께 취급하면서 다소 넓은 듯하다. 동양마켓은 중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 부부가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마켓(Seoul Supermarket)은 한인부부가 운영하고 있다.

<의료시설>

렉싱턴은 대학도시로써, University of Kentucky 의 의과대학이 도시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으며, 켄터키 의대는 미국 내에서도 꽤 실력을 알아준다고 한다. 켄터키 주 전체에서 이 병원을 방문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시내 곳곳에 보건소와 같은 시설이 있어 보다 저렴하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타 개인병원들이 있으며, 잇몸이 전문인 한인치과도 있다.

<생활비>

보통 한국인 유학생들은 자녀 학군을 고려하여 Beaumont 지역에 많이들 거주하는데, 렉싱턴에서 상대적으로 아파트 렌트비가 비싼 편에 속한다. 1 룸 1 베쓰의 경우 800-900 불, 2 룸 1~2 베쓰의 경우 1,000~1,100 불 정도가 최저 월세수준이다. 여기에 각종 공과금 비용이 추가된다. Beaumont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구할 수 있다. 보통 아파트는 보증금을 내고 들어가야 하며, 대부분 2 인당 1 룸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American standard 로 알고 있음) 부부와 자녀 등 총 3 명의 가족인 경우 방 2 개를 렌트 해야 한다. 5 명의 가족이라면 방 3 개의 아파트를 렌트 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렌트 기간 중에 친척/지인 등이 아파트에 일시 거주하게 될 경우, 그 기간이 제한되기도 하므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패널티가 부과될 수도 있으므로 계약서는 꼭 전체를 읽어보기를 강권한다. 아파트 렌트비용 면에서는 캘리포니아 등과 비교하면 아주 경제적인 가격인 셈이다. (샌디에고는 방 2 의 경우 최소 월 2,000 불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

공과금은 보통 상,하수, 전기, 인터넷, 가스, 집 보험, 자동차보험 등을 고려해야 한다. 공과금은 렉싱턴 시내 대부분 같은 회사들을 이용하는 것 같고, 자동차 보험은 미국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보다 저렴한 보험회사에 가입할 수 있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미국 운전면허증(켄터키 주)을 취득하는 게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운전면허는 필기는 바로 접수해서 바로 볼 수 있으며, 한국어로도 볼 수 있다. 다만 실기시험의 경우, 어떤

경우는 일-이주 내에 실기시험일자가 잡힐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한 두 달정도 후로 날짜가 잡히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실기시험 일자가 다르게 잡히는 것은 지난 일년간의 경험에 의하면, 시험 접수 담당 공무원의 재량인 듯 하다. 2 주내에 시험일자가 잡히게 되면 완전 행운이라고 생각해도 될 듯 하다.

<휴대폰>

대부분 통신사에서 5 명까지 그룹핑을 하게 되면 인당 월 20 불까지 할인하는 제도가 있으므로 동료 및 가족들과 적극 활용하면 된다. 단 한국 휴대폰을 가져가서 사용할 경우, (최신 단말기가 아닐 경우) 일부 지역에서 통신번호가 잡히지 않을 수도 있고 미국 내 지역별로(극히 일부) 일부 통신사가 서비스 안 되는 구역도 있다, 가능하면 가족간 다른 통신사를 이용하는 것이 위험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명품 아울렛 물>

렉싱턴 시내에서 제일 가까운 명품 아울렛은 루이빌(Louisville) 방향(렉싱턴에서 서쪽)으로 약 한 시간 거리의 Simpsonville 에 있다. 그 다음 가까운 곳은 렉싱턴에서 북쪽의 신시네티(Cincinnati) 위쪽의 Cincinnati Premium Outlets 이 있다. 뉴욕 등 미국내 타 대도시의 명품 아울렛은 물론, 블랙프라이데이 등 쇼핑 시즌에는 아울렛 물의 할인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

4. 기타 개인 활동 경험

<여행>

개인적으로 아이들 없이 남편과 단 둘이 미국생활을 하게 된 터라 자연스럽게 여행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다. 학기 중엔 주말을 이용하고, 4 월초 대학원의 봄방학을 이용해서 플로리다, 쿠바 등을 동기들과 함께 여행했고, 3 개월간의 여름방학을 이용, 유럽과 미국, 캐나다 등을 여행할 수 있었다. 캐나다는 육로로도 간단한 심사를 통한 출입국이 가능하였기에 자가용으로 여행을 다녀왔었다. 한국에서 일반 성인은 상상하기 힘든 3 개월간의 휴가였기에 최대한 많은 곳을 여행하려고 했고, 평생 잊지 못 할 추억들을 만들 수 있었다.

<운동>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여가시간에 골프 등을 즐길 수 있게 되어있으며, 시내에 YMCA 가 여러 군데 있어서 가족들 모두 여가를 즐기기에 충분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또한 UK 내에 실내체육관이 있다는데, 개인적으로는 운동을 할 줄 몰라 이용하지 못하였다.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자체 운동시설을 구비하고 있는데, 헬스장, 수영장, 테니스장, 농구코트 등을 구비한 아파트 단지들이 꽤 많이 있다. 실제 내가 살았던 아파트도 수영장과 헬스장이 있어 남편은 헬스장을 적극 활용하기도 하였다. 운동을 좋아한다면 아파트 선택 시 운동 시설도 확인해보면 좋을 듯 하다.

<학교 외 활동>

일부 교회에서 외국인을 위한 무료 ESL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UK 내에서도 정식 ESL 프로그램은 물론, 비공식적으로 동아리 성격의 영어학습 활동을 할 수도 있다. 또한 지역 college 로 BCTC 라는 기관이 있는데 직업훈련 등과 같은 기술교육 전문 단과대학인데, 이곳에서도 무료로 운영하는 ESL 프로그램이 있어 많은 외국인들이 이를 이용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 실제 남편의 경우, 이곳에 지원을 위한 입교시험을 봤는데, TOEIC 형식의

시험이었다고 한다. 상반기에 빈자리가 없어서 8 월부터 시작하는 가을학기가 되어서야 입소할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다. 무료이지만 굉장히 체계적으로 운영을 잘 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 10 년정도 된 이민자들도 입소하여 몇 년째 그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다. 대부분 입소하면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업을 받기 때문에 빈자리가 많이 생기지 않아 신규 입소가 그리 쉬운 편은 아니지만, 도전해 볼 가치가 충분하므로 배우자 혹은 대학생 자녀가 있다면 적극 활용하기를 권고 드린다.

5. 비자, 출입국 및 기타 해외생활 정보

미국에서 1 년을 살았어도 태어난 곳이 아니기에 떠나오기 전까지도 새롭게 배우게 되는 것들이 있다. 특히 운전으로 타지를 여행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와는 다른 교통체계들이 있으므로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도 항상 교통신호와 안내판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차량으로 출입국이 가능한데, 실제 자동차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입국할 때, 심사관이 자동차 트렁크를 조사하게 되었다. 아이스박스에 과일 등의 생 농산물이 남아있던 것을 생각 못하고 있었다가, 심사관에게 호되게 말을 들었던 경험이 있다. 나중에 입국 심사대 앞에 안내판을 보니, 농산물 등은 소지 금지라고 되어있었다. 자동차로 출입국 하게 되더라도 규정상으로는 비행기 출입국심사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듯 하니, 너무 긴장을 풀지 않기를 권고 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로 입국심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장점이 있었다. 위와 같은 한 번의 경험을 제외하고는 모두 간단히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하였으니 말이다. 캐나다에서는 미국의 현금카드를 수수료 없이 미국과 동일한 조건으로 사용 가능하였다. 미국에서 신분증으로 활용되는 운전면허를 획득하기 전까지는 여권, 한국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이 세가지는 여행할 때 필수 소지품이다. 잠시라도 국경을 넘을 경우에는 위의 삼중세트 외에 DS-2019 를 필참 하여야 한다. 미국내 이동 시는 상관없으나 외국에서 미국으로 다시 입국할 때는 반드시 DS-2019 가 있어야 입국 시 문제가 없다.

6. GMP 2 년차 전반적 평가

University of Kentucky 에서의 학습, 여행, 그리고 이를 통해 지난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고, 많은 시간을 남편과 함께 보내면서 서로에 대해 그 동안 몰랐던 것들을, 그리고 심지어는 나 자신에 대해 더 알게 된 값진 경험이었다. 학교 프로그램은 김두옥 교수님의 열정이 묻어있는 커리큘럼으로써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성인이 된 이후 중년이 되어 처음으로 이러한 기회를 얻게 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하게 생각한다. 인생의 중턱을 맞이하면서 인생 전반기를 성찰해보고 남은 후반기를 설계하기에 더더욱 좋은 시간들이었다. 이와 같이 인생의 안식년을 보낼 수 있었음에 다시 한 번 감사하며 1 년간의 미국생활뿐 아니라 KDI 생활까지 총 2 년간의 삶을 통해 충전된 이 에너지로 남은 인생을 멋지게 꾸려나갈 수 있을 것 같다.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이 정 석	학번	
이메일	welcometolee@korea.kr		

대학원명	University of Kentucky	(국가) 미국
기 간	'17. 1. 8 ~ '17. 12. 14	[귀국일: '17년12월22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처장 귀하

2018년 1월 일

신청인 : 이 정 석 (인)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저는 미국 중동부, 켄터키주 렉싱턴에 위치한 켄터키 대학교(University of Kentucky)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전에는 학위 과정만 가능했는데 비학위 과정이 2017년에 처음 생겨 지원하여 입학하였는데, 특히 물가가 가장 저렴하다고 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참가로 저는 65년생입니다.

비학위가 가능한 다른 지역에 비해 아파트 렌트비, 유류비가 훨씬 저렴하고, 농산물에 대한 Tax도 없어서 생활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약 3개월간의 여름방학 동안 여행을 위한 경비절약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UK, IPPMI 대학원에는 2017년부터 한국인 학생의 초기정착 지원을 위하여 현지 거주 한국인 스텝을 고용하여, 공항 픽업, 아파트 정보제공, 자동차 구입 안내, 자녀 학교정보 안내 등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켄터키주 렉싱턴은 우리나라와 기온이 정말 비슷합니다. 바다는 없지만 산과 초목이 잘 어울려져 있고 특히, 지역 이름이 "Blue grass"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좋은 잔디가 있어 말의 좋은 먹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켄터키 렉싱턴은 "Horse Capital of the World"라고 불립니다. 매년 "Kentucky Derby" 라고 해서 루이빌 이라는 가장 큰 도시에서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경마 대회가 열리는데 정말 장관입니다. 한편 대학이 있는 렉싱턴에서도 "Keene land"라는 곳에서 매년 두 차례 경마대회가 개최됩니다.

켄터키 대학교(UK)는 의과대학, 약학대학 등이 특화되어 있어 듣기로는 하버드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박사과정을 UK에서 한다고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10대 University City중의 하나 라고 불릴 정도로 도시 안에 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생활이 편리합니다. 또한 학생증만 있으면 시내버스는 무료입니다.

큰 딸(1993년생)은 F1 비자로 출국하여 UK에서 EsI 프로그램(8주, 주 4회, \$4,000 정도)을 3학기, 아들(1997년생)도 J2로 UK, Semi-Intensive program(8주, 주 2회 야간수업, \$200)을 3학기 수강하였습니다. 막내 딸(2000년생)은 공립 고등학교(2학년 2학기)에 입학하여 3학년 1학기를 마쳤습니다.

렉싱턴 지역은 Fayette County 교육청 소관지역으로 모든 공립학교가 School Bus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UK는 비학위가 2017년에 최초로 생겼지만, 비학위와 비슷한 직무훈련 과정이 지난 10여년간 진행되어 와서 프로그램의 질은 아주 좋았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IPPMI 대학원장이 한국인 교수(김두옥 교수)이고, 직무훈련 과정은 국내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1

년 또는 2년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며, 영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Esl 프로그램, 분야별 우수 초빙강사 초청 청취, 그리고 개인별 맞춤형 Internship 프로그램이 있어서 관심 대상 기관에 2개월간 직접 방문하여 우리나라와 다른 점 등을 비교연구할 수 있는 기회도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Esl 과정에서는 편안하게 영어를 배우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학생 중심으로 주제를 선정할 수도 있고 수시로 있는 Field trip을 통하여 교사와 학생간에 자연스럽게 대화가 가능하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샌디에고 등 다른 비학위 학교는 학기말 시험을 패스해야 하나, UK는 자유주제의 프리젠테이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비학위인 관계로 수강신청이나 이수해야 할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저는 가족이 저를 포함해서 성인 5명(와이프와 딸 2, 아들 1)입니다. 비용절약을 위해서 저렴한 아파트를 인터넷으로 찾아 계약했는데, 3-bed에 \$800(2-bed는 \$750, 1-bed는 \$650 정도)을 매월 지급했습니다. 이곳 렉싱턴에도 고급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한인들 밀집지역인 Vermont 지역에는 2-bed가 \$1,000~\$1,500 정도 입니다. 렉싱턴은 흑인 인구가 10% 미만입니다만, 제가 살았던 지역은 흑인들도 많고 히스패닉도 많이 있어서 대부분 한인들이 안전상의 문제로 걱정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이웃에게 친절했으며 어린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살아 갈려고 매일같이 노력하는 사람들 이었습니다.

켄터키 지역이 청정하여 야채나 고기 등 모든 음식물이 신선했습니다만, 농산물에 대한 Tax는 없지만 야채는 우리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학생들과 한 한국교회의 지원으로 농장에서 함께 주말농장을 운영해서 상추, 배추, 토마토, 호박, 고추, 고구마, 무, 등 다양한 야채를 재배하여 공유하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한국학생들에 대한 농장은 원할 경우 지속적으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우리나라에도 진출해 있지만 저는 도매업소인 Costco를 많이 애용했습니다. 사용 포인트가 적립이 되는 \$100 카드가 있고 적립이 안 되는 \$60 카드가 있는데, \$100 카드 구입을 권합니다. 대부분의 생필품과 식료품 그리고 Gas 요금이 시중에 비하여 저렴하고, 연말에 많은 refund가 있습니다. 특히, 차량 렌트도 저렴하게 가능합니다. 그 외에 비슷한 Sam's club도 있고 식료품 전문 Kroger와 만물 백화점인 Walmart가 곳곳에 많이 있어 생활이 편리합니다.

핸드폰은 Prepaid 폰으로 유심을 구입하여 사용했습니다. 선불폰은 Verizon, AT&T, Cricket, T-mobile 등 많이 있으며, Verizon, AT&T 선불폰이 가장 성능이 좋습니다. Cricket도 미국 전 지역은 커버가 잘 되어서 원래 1인당 기본형이 월 \$40인데, 학생 5명이 한 Account로 묶어서 \$100만

지급하고 개인적으로는 \$20만 부담했습니다.

TV와 Internet은 아파트에서 제공하는 것을 사용하거나 Spectrum이라는 회사의 세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켄터키 운전면허 취득시까지 Progressive 등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고, 운전면허 취득후에 바로 아주 저렴한 AAA 자동차 보험으로 바꾸시면 기존 보험사에서 지급액중 잔액을 환불해 줍니다.

Kentucky주가 중동부에 위치하고 있어 국내여행에도 편리합니다. 여름방학 3개월동안 가족들과 함께 미국 최남단 Key west, 서부 LA,, Seattle, New York, Washington D.C를 포함하여 주요 National Park 등도 승용차를 이용하여 이동 가능합니다.

Kentucky주에서는 산삼이 저렴합니다. 인근의 Appalachia 산맥을 중심으로 산삼이 많이 서식하고 있어 전문 Dealer를 통하여 구입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구입하면 직접 채취도 가능하지만, 개인소유 산림이 많아 어렵고, 산세가 험하여 위험하기 때문에 이 지역 내에서도 활성화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생활

가족 5명이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타지에서 각자가 자기가 계획한 분야에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여행을 통하여 가족 구성원들이 많은 대화로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알게 되었으며 화합하는 가운데 가족애를 뜨겁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Kentucky 지역은 공기오염이 전혀 되지 않아 여름철에는 주위 초목지역에 셀 수 없는 만큼 많은 반딧불이 서식하고 있어 정말 아름다운데, 그 덕에 막내딸이 만성 비염에 시달렸었는데 자연적으로 치유되었습니다.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저의 막내딸은 2000년도에 제가 1년간 Washington주, Seattle 파견기간 동안에 태어나서 시민권 (Citizenship)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미국여권을 발급받아 귀국했었습니다.

이번에 출국할 때 배운 것은, 한국이름과 미국이름이 다르면 미국여권과 한국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딸 한국이름은 이다연(Dayeon Lee), 미국 이름은 Grace An Lee으로 법적으로 이중국적입니다. 여자이므로 만21세 때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꼭 갱신하며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발급을 위해 매년 성장과정의 사진을 스크랩, 제출하여 증명하여야 합니다.

차량구입은 가능하면 1년동안 장기여행 등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중고나 신차 구입을 권합니다. 비용절약을 위해 저렴한 중고차를 구입했다가 잦은 고장으로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될 수도 있습니다.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가능하면 모든 가족들이 함께 연수에 동행하여 좋은 경험 많이 하시기를 권합니다.

